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차이나는 뷰(6월 4주차 Review)
휴전 합의가 가져다준 훈풍

China Weekly

2025. 6. 30

- 본토, 홍콩 증시 상승.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투자심리 개선
- 샤오미는 YU7 신차 발표와 더불어 주문량 기대 상회에 주가 강세
- 중화권 증시는 단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6월 4주차 증시 Review & Preview

지난주(6/23~6/27) 본토, 홍콩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발표하며 중동발 지역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며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지난 일주일간 CSI300 지수는 2.0%, 홍콩H지수는 2.8% 상승했다. 9월 3일 열병식 거행(항일전쟁 승리 기념) 소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고, 본토 증권사의 홍콩거래소 가상자산 라이선스 취득에 증권주도 상승했다. 샤오미는 YU7 신차 발표와 더불어 주문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한 주간 9% 넘게 상승했다. 중화권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며 단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 이슈: 상반기 중화권 증시 점검

상반기 주식 시장이 마무리됐다. 홍콩 증시는 기타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하며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본토 증시는 전통 산업 비중이 높은 상해종합지수 성과가 제일 좋았다. 상반기 본토 시장에서 은행, 비철금속, 미디어 섹터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석탄, 부동산, 음식료 업종이 부진했다. 은행주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배당, 저변동성 매력과 중장기 자금 유입에 대한 정책 기대감까지 겹치며 상반기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음식료는 최근 정부 금주령 및 실적 둔화에 백주 섹터 주가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다. 홍콩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소재, IT 업종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지난주 상해종합지수는 3,400pt를 넘어서며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중 관세 협상이 이뤄지며 외부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 기조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매판매 증가율, 강화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수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은 1) 추가 부양책과 같은 상승재료 혹은 2) 경제 펀더멘털의 꾸준한 개선이다. 이 두가지 조건이 확인되기 전까지 증시 하방은 제한적이지만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정책 수혜가 가능한 소비주, 중장기적 성장이 예상되는 테크주, 안정적인 고배당주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김시청
sicheong.kim@koreainvestment.com

이동연
dy.lee@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시 Review

〈6월 4주차 증시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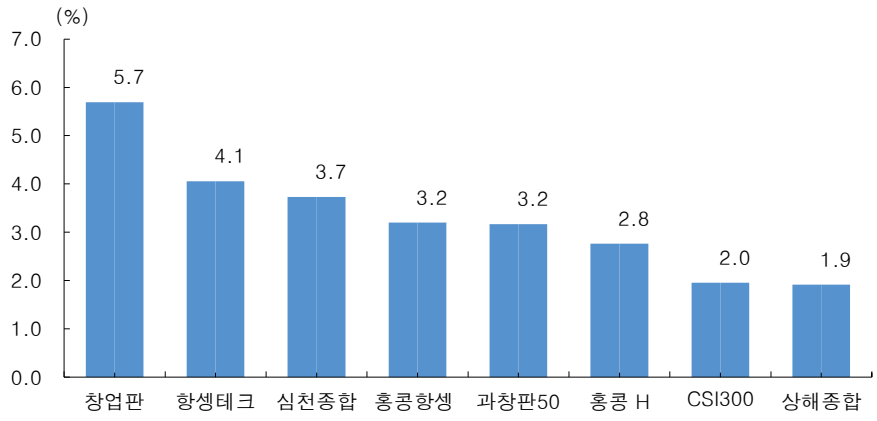
본토 증시 상승.
상해종합지수가 3,400pt를 넘어서며 연중 신고가를 경신

지난주(6/23~6/27) 본토 증시는 상승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발표하며 중동발 지역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에 투자심리가 개선됐고 지난 일주일간 상해종합지수는 1.9%, 심천종합지수는 3.7%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는 3,400pt를 넘어서며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업종별로 IT(+6.0%), 소재(+4.4%) 섹터가 상승했고 에너지(-0.6%)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9월 3일 열병식 거행(항일전쟁 승리 기념) 소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고, 증시 강세 및 본토 증권사의 홍콩거래소 가상자산 라이선스 취득에 증권주도 상승했다. 은행주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중동 지역 리스크 완화에 해운, 에너지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홍콩 증시 상승.
빅테크, 반도체,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카지노, 여행 관련주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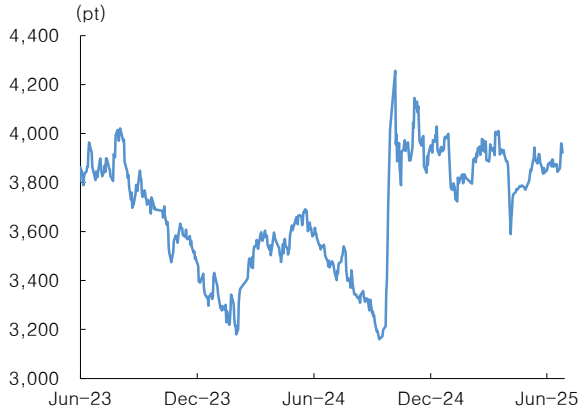
홍콩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중동발 지역적 리스크가 해소되며 지난 일주일간 홍콩H지수는 2.8%, 항셍테크지수는 4.1% 상승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며 빅테크 주가가 상승했고, 그중 샤오미는 YU7 신차 발표와 더불어 주문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의 국가안보부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은 국가 안보에서 제일 중요'라는 문장을 발표하며 반도체 섹터 센티먼트를 자극했다. SMIC 주가는 한 주간 13.5%, 화홍반도체는 6.7% 상승했다.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여행, 카지노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림 1]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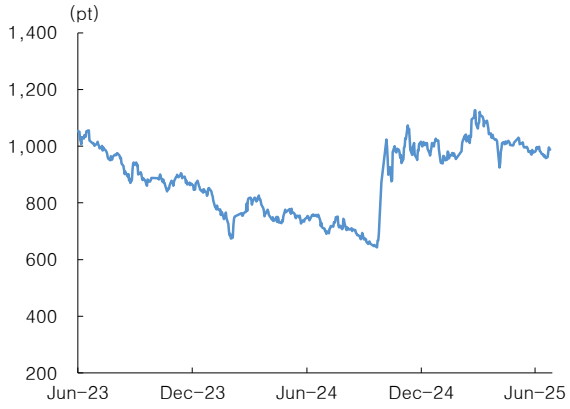
주: 6/27 종가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2] CSI300 지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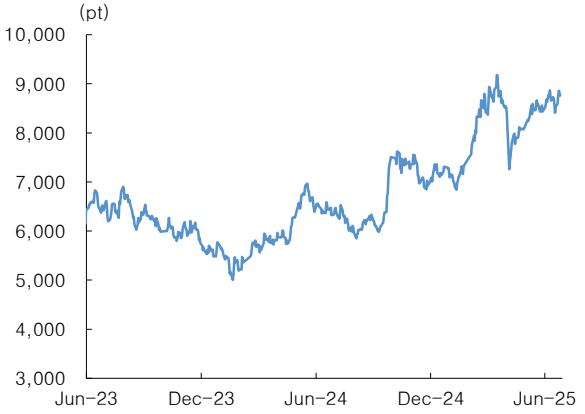
주: 6/27 종가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과창판50 지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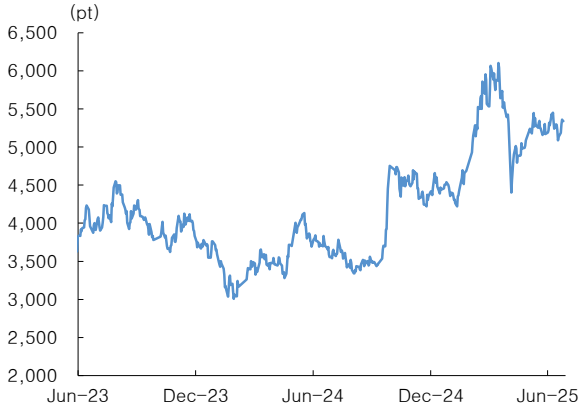
주: 6/27 종가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홍콩H지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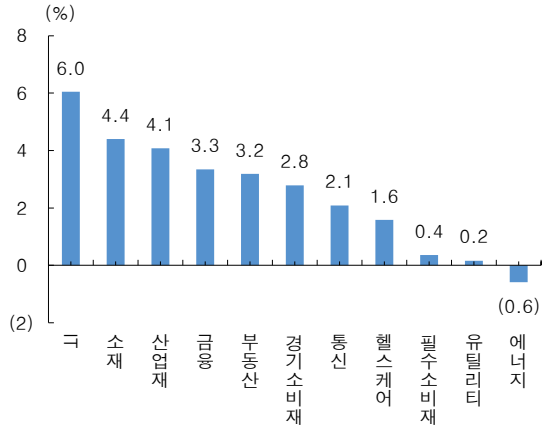
주: 6/27 종가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항셍테크지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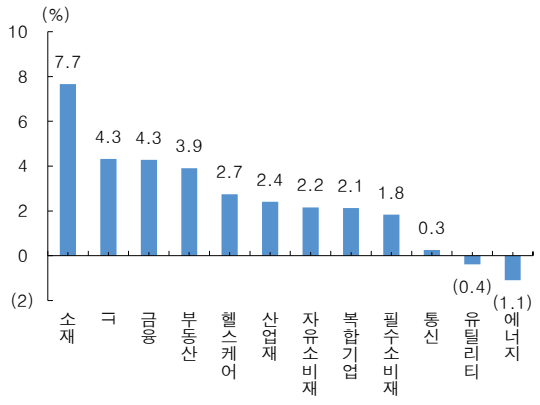
주: 6/27 종가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본토 주간 업종별 등락률 (6/23~6/27)



주: GICS 1급 산업 기준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7] 홍콩 주간 업종별 등락률 (6/23~6/27)



주: 홍콩항셍산업지수 기준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표 1> 주간 거래 상위 종목

(단위: 백만위안, %)

본토 거래대금 Top10					홍콩 순매수 Top10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거래대금	등락률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순매수액	등락률
1	동방재부	300059.SZ	10,961.2	10.1	1	SMIC	0981.HK	4,352.2	15.4
2	CATL	300750.SZ	9,773.1	3.7	2	건설은행	0939.HK	4,350.5	7.4
3	귀주모태주	600519.SH	7,923.9	0.3	3	메이퇀	3690.HK	2,010.3	0.9
4	BYD	002594.SZ	6,299.7	(1.8)	4	국태군안증권	1788.HK	1,777.6	162.6
5	Eoptolink Technology	300502.SZ	4,643.3	9.0	5	신달바이오	1801.HK	1,416.9	(1.4)
6	중제욱창	300308.SZ	4,588.1	7.9	6	Pop Mart	9992.HK	1,003.2	3.7
7	교통은행	601328.SH	3,732.2	3.3	7	중국평안	2318.HK	738.1	9.6
8	즈난전	300803.SZ	3,691.8	34.4	8	중안보험	6060.HK	584.8	(9.6)
9	초상은행	600036.SH	3,505.8	1.3	9	홍콩중국여행사	0308.HK	532.1	46.5
10	중신증권	600030.SH	3,418.8	6.4	10	BeiGene	6160.HK	209.2	(0.2)

주: 본토 시장 거래대금 기준, 홍콩 시장 순매수액 기준, 6/23~6/27 거래 기준, 등락률은 6/20 대비 6/27 기준 수익률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표 2> 금주(6/30~7/6)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

날짜	주요 지표 및 일정
6/30	6 월 관방 제조업 PMI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주간 이슈

이슈: 상반기 중화권 증시 점검

상반기 홍콩 증시는 기타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 본토 증시는 은행, 비철금속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홍콩 증시는 헬스케어, 소재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임

상반기 주식 시장이 마무리됐다. 홍콩 증시는 기타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하며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본토 증시는 전통 산업 비중이 높은 상해종합지수 성과가 제일 좋았다. 주요 지수 등락률을 살펴보면 상해종합지수가 2.2%, 홍콩H지수가 20.2%, 항셍테크지수가 19.5% 상승했고 심천종합지수가 0.3% 하락했다. 상반기 본토 시장에서 은행, 비철금속, 미디어 섹터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석탄, 부동산, 음식료 업종이 부진했다. 은행주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배당, 저변동성 매력과 중장기 자금 유입에 대한 정책 기대감까지 겹치며 상반기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으로 희토류, 금, 알루미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비철금속 섹터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음식료는 최근 정부 금주령 및 실적 둔화에 백주 섹터 주가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다. 홍콩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소재, IT 업종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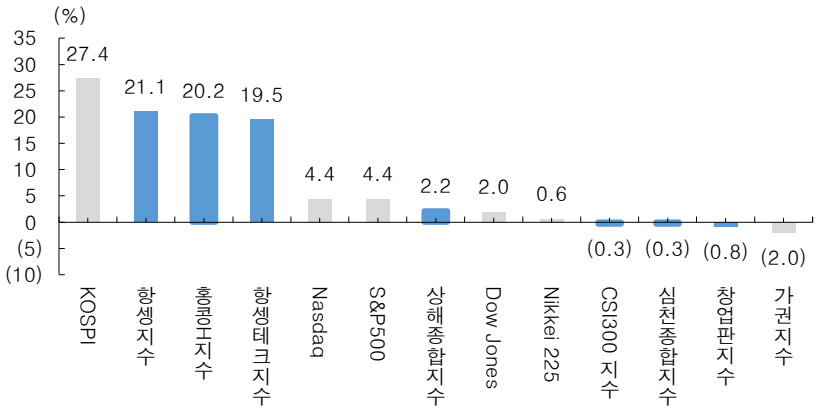
상반기 홍콩 증시 최대 이슈는 DeepSeek 효과에 따른 기술주 상승과 신소비주의 급부상. 본토 증시는 복합적 영향으로 홍콩 증시 대비 언더퍼폼

상반기 홍콩 시장의 최대 이슈는 DeepSeek 효과에 따른 기술주 상승 랠리와 신소비주의 급부상이다. DeepSeek의 등장은 AI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주며 중국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이끌어냈다. 신소비주 주가 급등은 감성 소비에 집중하는 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Labubu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Pop Mart는 지난 1년간 주가가 600% 넘게 폭등했고, 정교한 디자인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Laopu Gold는 상장 후 230% 급등했다. 반면, 본토 증시는 홍콩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했는데 주로 외국인 투자자의 H주 선호, A주 프리미엄(A주가 더 비싼), 지수 구성 차이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식 시장의 추세적 상승은 뚜렷한 상승재료와 경제 펀더멘털 개선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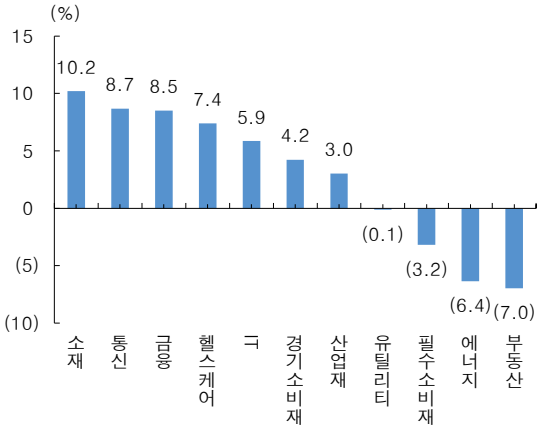
지난주 상해종합지수는 3,400pt를 넘어서며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중 관세 협상이 이뤄지며 외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고, 적극적인 부양책 기조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매판매 증가율, 강화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수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은 1) 추가 부양책과 같은 상승재료 혹은 2) 경제 펀더멘털의 꾸준한 개선이다. 이 두가지 조건이 확인되기 전까지 증시 하방은 제한적이지만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정책 수혜가 가능한 소비주, 중장기적 성장이 예상되는 테크주, 안정적인 고배당주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8] 상반기 글로벌 주요 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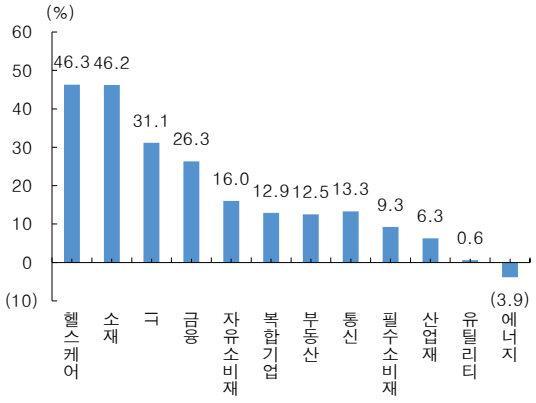
주: 6/27 종가 기준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상반기 본토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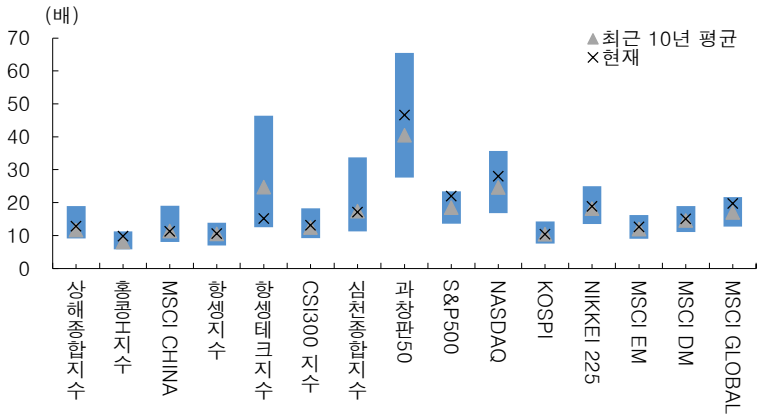
주: GICS 1급 산업 기준, 6/27 종가 기준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상반기 홍콩 업종별 수익률



주: 홍콩항셍산업지수 기준, 6/27 종가 기준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글로벌 주요 지수 밸류에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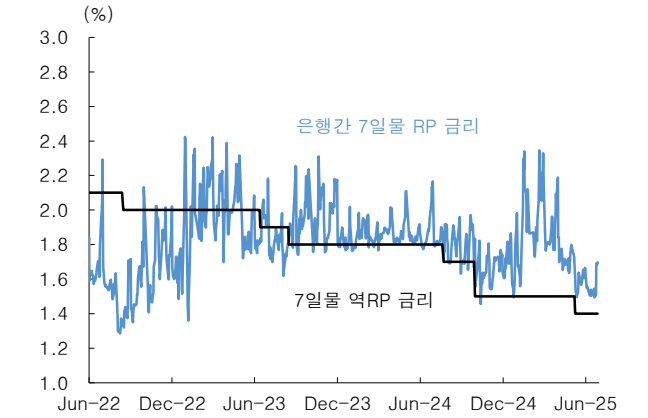


주: 12MF PER을 기준으로 하며 막대 차트의 하단은 과거 10년 최저치, 상단은 과거 10년 최고치를 의미. 회색 표식은 과거 10년 평균 수준, 검은색 표식은 6월 26일 기준 12MF PER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차트로 보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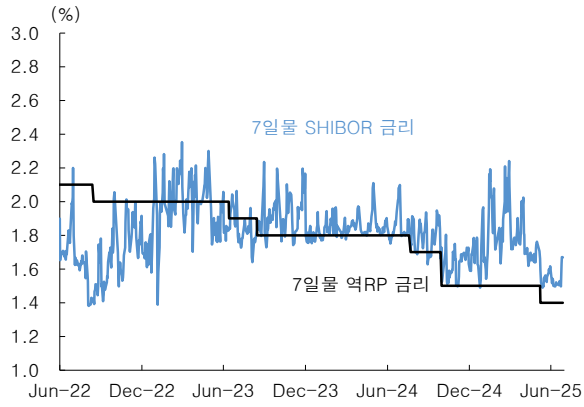
1. 금리

[그림 12] 은행간 7일물 RP 금리 전주대비 20.3b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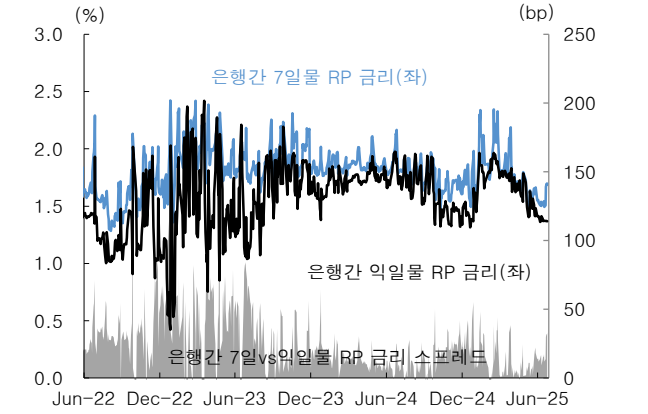
주: 6/27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7일물 SHIBOR 금리 전주대비 13.9b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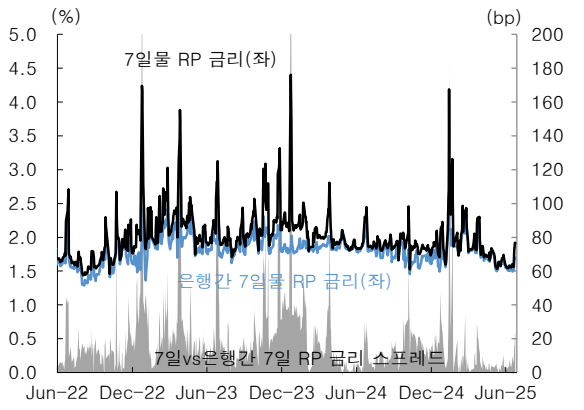
주: 6/27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은행간 7일vs익일물 RP 금리 스프레드 전주대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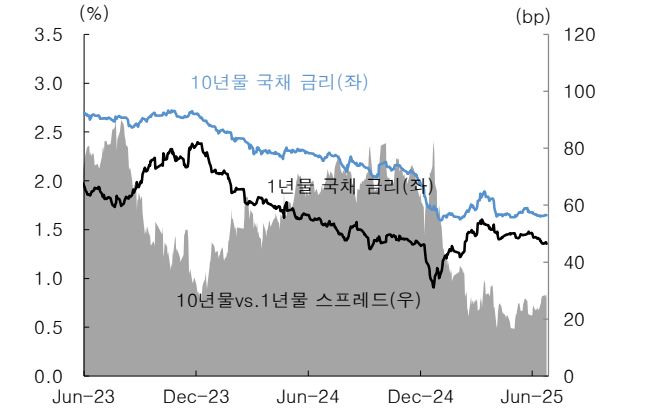
주: 6/27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7일vs은행간 7일물 RP 금리 스프레드 전주대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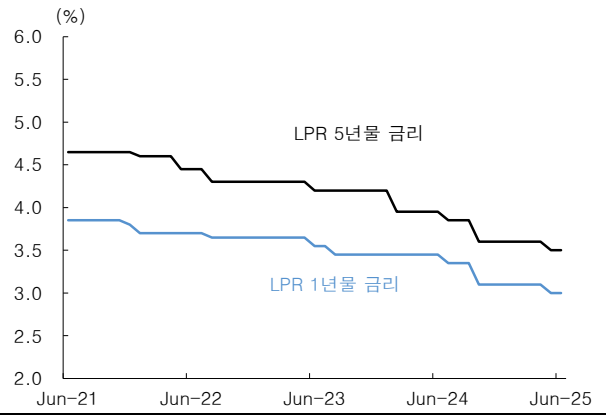
주: 6/27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10년vs1년물 국채 금리 스프레드 전주대비 확대



주: 6/27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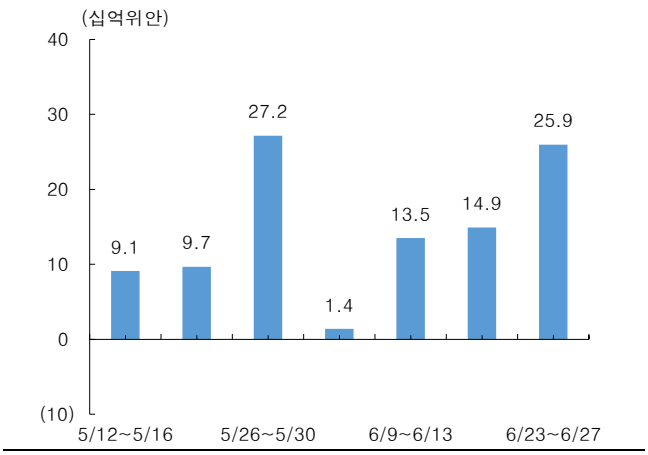
[그림 17] LPR 1년물 금리 3.0%, 5년물 금리 3.5%



주: 6/20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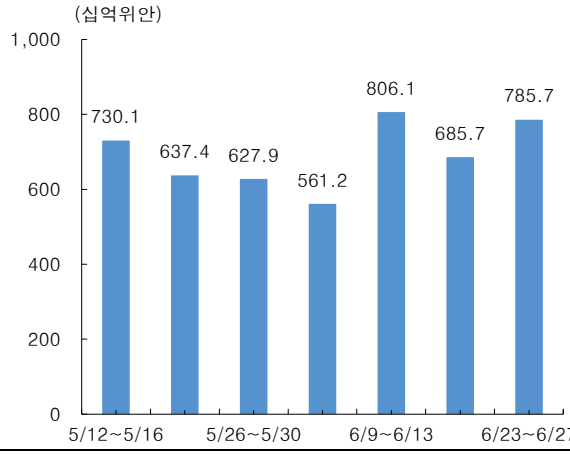
2. 증시 수급

[그림 18] 중국인의 홍콩 주식 순매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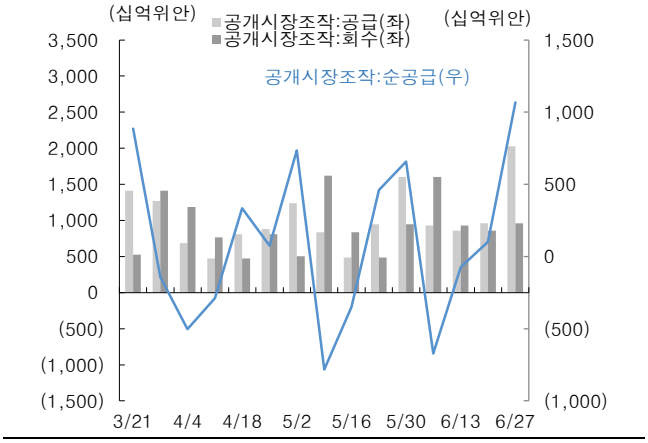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19] 외국인의 중국 주식 매입 주간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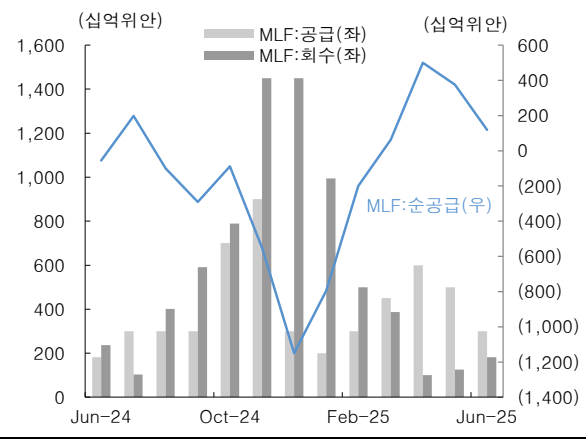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주간 공개시장조작 순공급액 10,672억위안



주: 6/23~6/27일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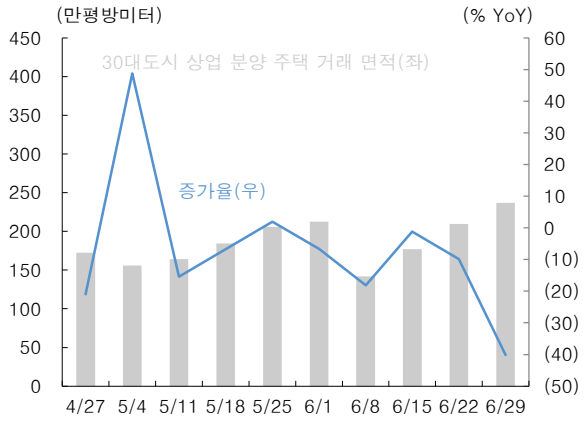
[그림 21] 5월 MLF 순공급액은 1,180억위안



주: MLF 수급은 월간 데이터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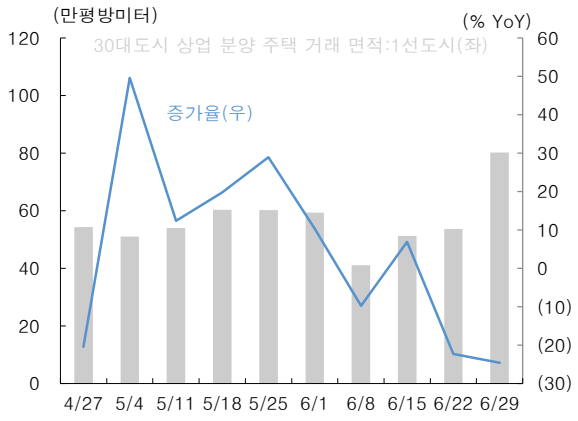
3. 부동산

[그림 22] 30대도시 상업 분양 주택 거래 면적 전주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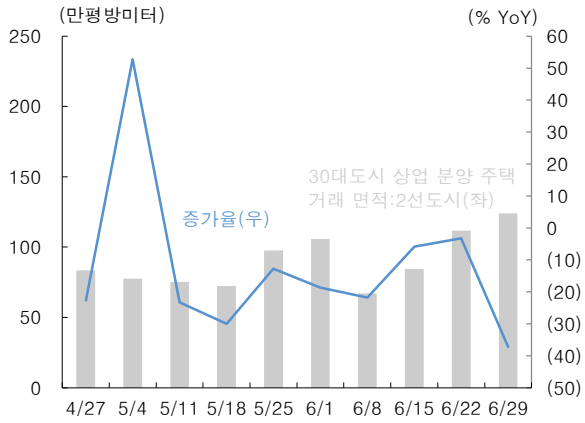
주: 6/29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23] 1선도시 상업 분양 주택 거래 면적 전주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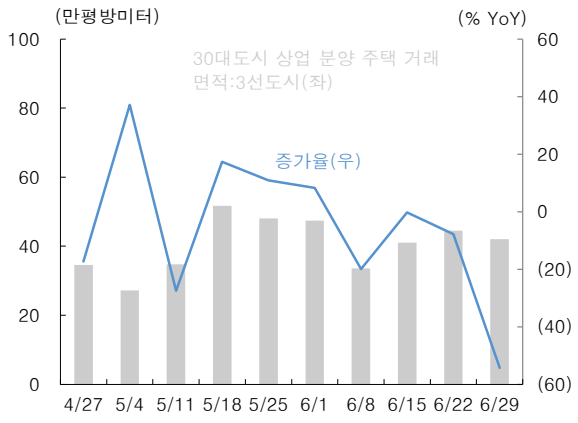
주: 6/29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2선도시 상업 분양 주택 거래 면적 전주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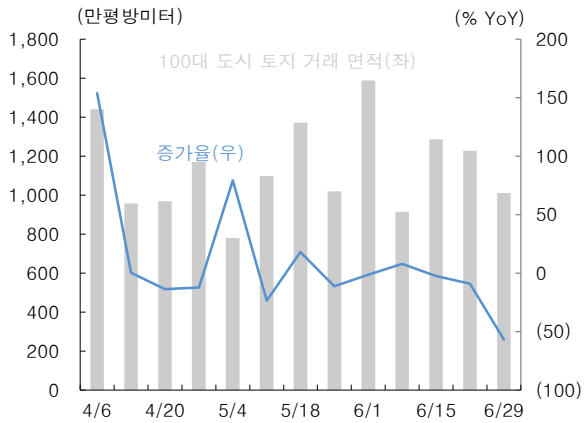
주: 6/29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25] 3선도시 상업 분양 주택 거래 면적 전주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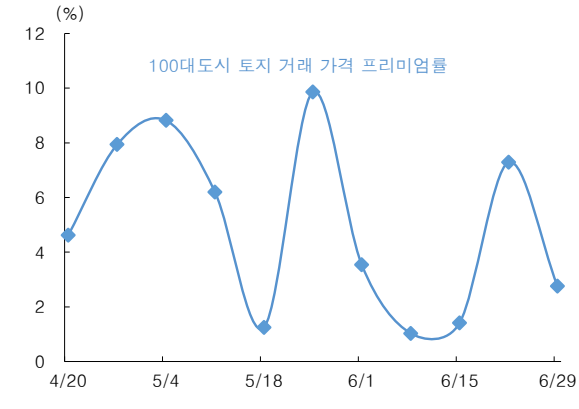
주: 6/29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26] 100대도시 토지 거래 면적 전주대비 ↓



주: 6/29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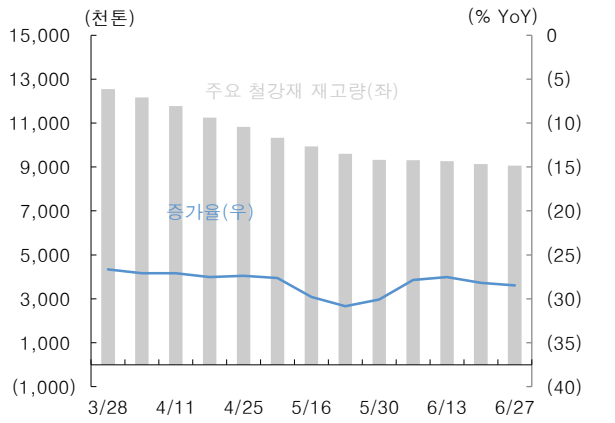
[그림 27] 100대도시 토지 거래 가격 프리미엄률 전주대비 ↓



주: 6/29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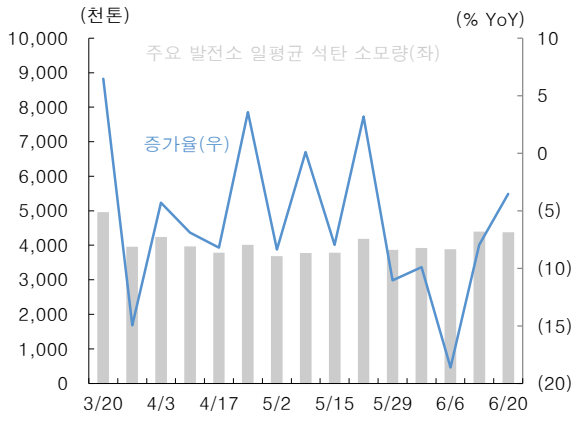
4. 공업생산

[그림 28] 주요 철강재 재고량 전주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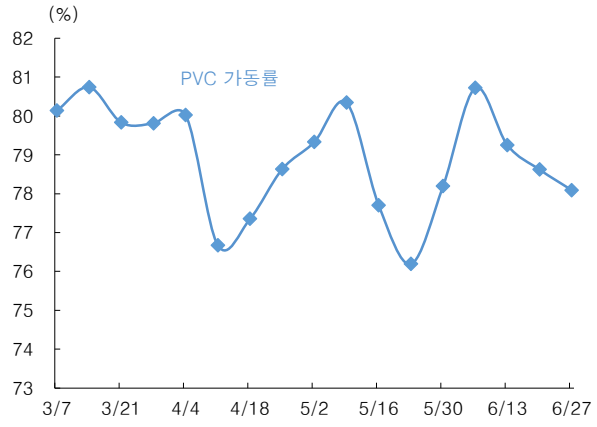
주: 6/27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29] 주요 발전소 일평균 석탄 소모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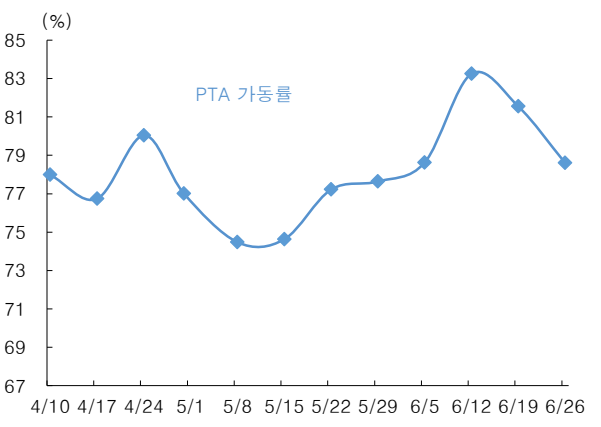
주: 6/20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30] PVC 가동률 78.1%, 전주대비 하락



주: 6/27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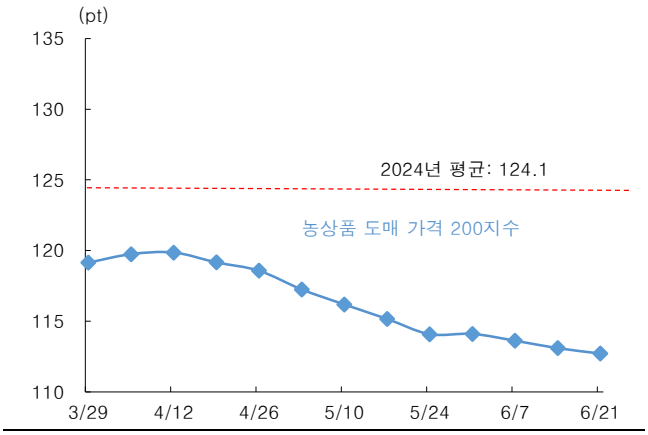
[그림 31] PTA 가동률 78.6%, 전주대비 하락



주: 6/26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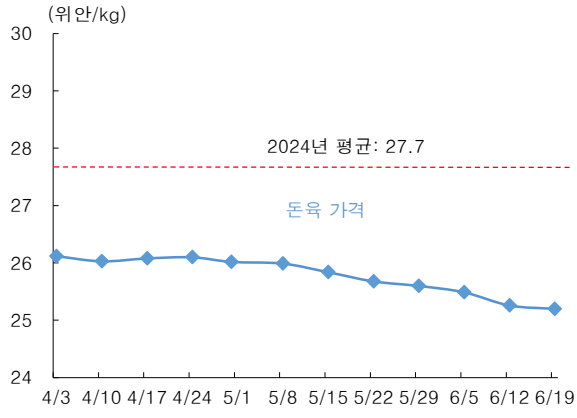
5. 물가

[그림 32] 농산품 도매 가격 지수 전주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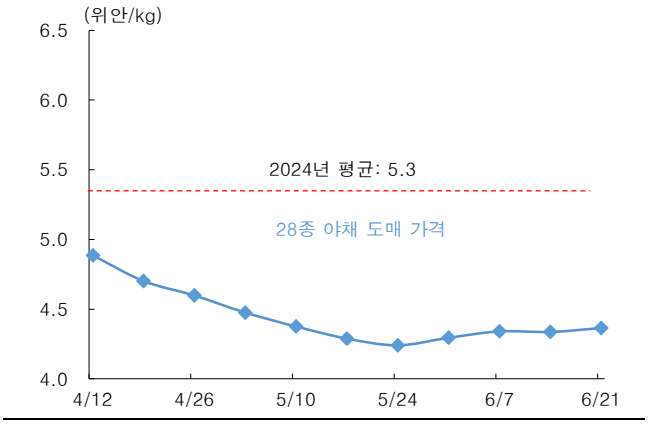
주: 6/21 기준 주간 평균 지수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33] 돈육 가격 전주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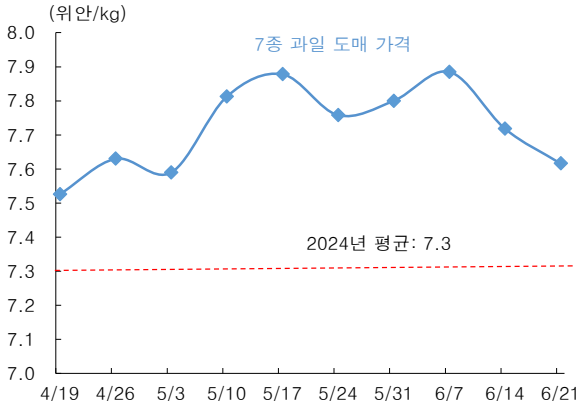
주: 6/19 기준 주간 평균 가격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34] 28종 야채 도매 가격 전주대비 상승



주: 6/21 기준 주간 평균 가격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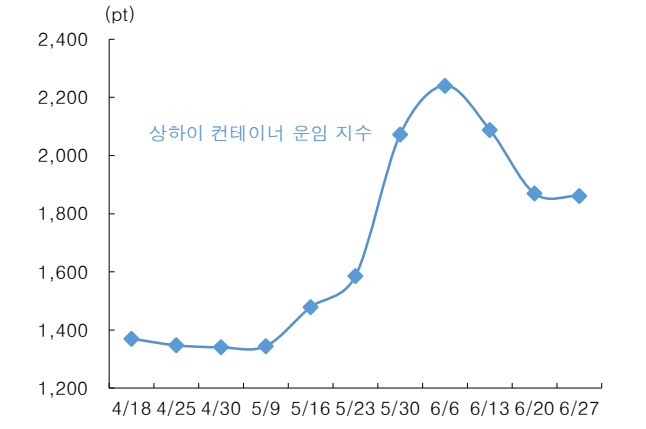
[그림 35] 7종 과일 도매 가격 전주대비 하락



주: 6/21 기준 주간 평균 가격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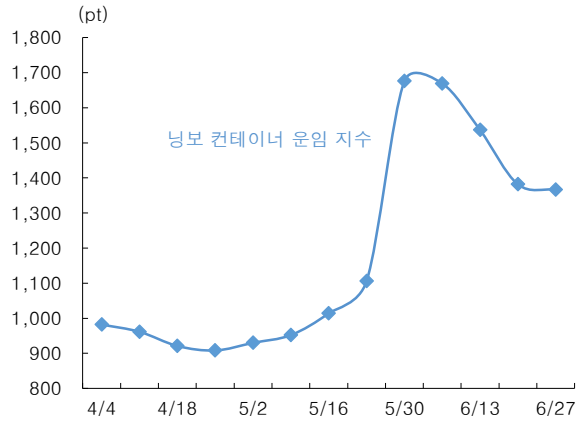
6. 운송/무역

[그림 36]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전주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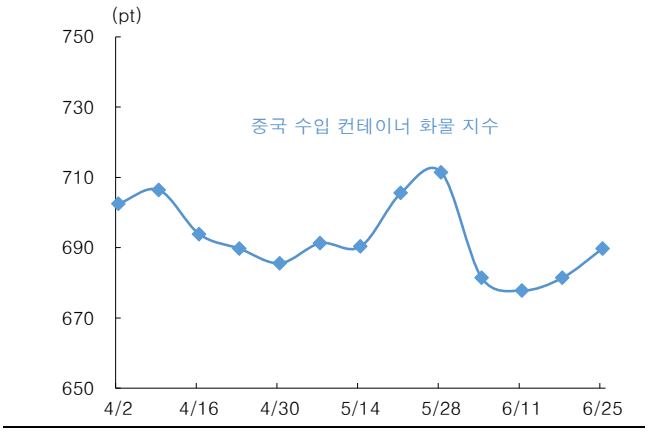
주: 6/27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37] 닝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전주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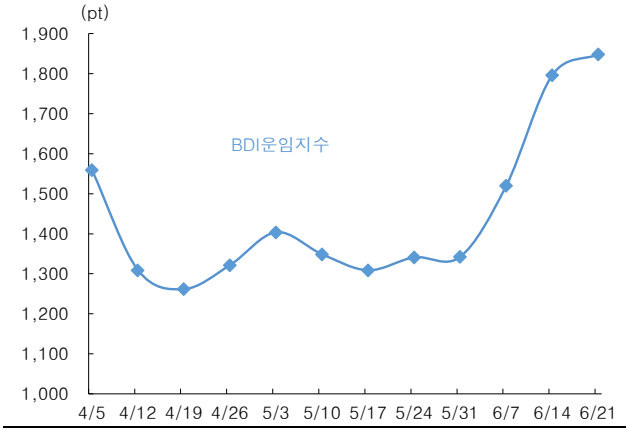
주: 6/27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38] 중국 수입 컨테이너 화물 지수 전주대비 상승



주: 6/25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39] BDI 운임 지수 전주대비 상승



주: 6/21 기준 /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6월 30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